

금융위기 벗어나나 했더니... 실물경제 회복 기미 안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의 침체 여파 등으로 한국의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잘 나가던 수출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수출·내수 얼어붙어 ... 대기업들도 자금난 '허덕'

수출증가를 '반토막' 국내경제 가장 큰 위협 요인

중소 34% "투기 등급" ... 작년말보다 5.4%p 늘어

◇중대기업 수출=건설·조선 등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도 기업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그동안 자금난 소문이 파다하던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이 1차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에 '부도 도미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영주에서 최대 물놀이 시설 등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을 벌이던 ㈜이앤씨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철강구조물에서는 업계 2위인 한신스

틸콘이 어음을 막지 못해 납품업체들의 어음 피해만 400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외환관련 충격까지 겹치면서 철강 수입업체들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삼정제강이 최종 부도를 냈고 삼보철강이 22일부터 당좌 거래가 정지됐다.

덩치가 큰 재벌 대기업들도 경제의 눈길에 쏠리고 있다. 업황이 계속 악화되면 대형사들도 자금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 둔화 조짐 ... 침체 심화될 듯=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향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수출둔화를 꼽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증가율이 3분기 27.7%에서 4분기 14.2%로 '반토막' 나고 내년에는 8.3%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수출증가율을 6.1%로 더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중기 33.5% 투기 등급=한은이 '중소기업 신용등급DB'를 활용해 10만1천839개 업체의 신용위험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투기등급 업체는 전체의 33.5%로 작년 말보다 5.4%포인트 늘었다. 반면 신용등급 1~4급인 우량등급 업체는 24.1%로 같은 기간 6.3%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 대출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6월말 중소기업 한 업체당 대출액은 19억4천만원으로 작년 말보다 2억3천만원, 비율로는 13.5% 증가했다. 연체율은 6월말 현재 0.83%로 작년 말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0.97%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0.91%), 도소매업(0.83%) 순이었다.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단가 상승요인을 제외하면 물량측면에서는 이미 둔화



한우고기, 너도 한점 나도 한점 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행사장에서 열린 '제 1회 한우의 날' 시식코너에 시민들이 몰려 한우고기를 맛보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KBS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우고기 활인판대, 한우사진전 등 다

개인투자자 '잔인한 10월' 주식 자산 80조원 날렸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코스피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해 10월 한달간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스피 관련 자산 중 무려 80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주식자산 80조 증발-연초 대비 180조 허공으로=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48조822억원이 줄었고, 국내와 해외 공모주식형펀드에서 31조9천20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개인들의 주식관련 자산이 80조250억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모두 합쳐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03조9천135억원이었으나 한달 뒤인 10월 31일 현재 613조8천652억원으로 줄면서 190조482억원이 사라졌다.

이중 작년 말 현재 개인투자자 비중이 25.3%인 점을 감안하고 이 비중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개인의 보유주식에서만 48조822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448.06에서 1,113.06으로 23.1% 폭락했다.

또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10월30일 기준으로 집계한 공모형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 규모는 각각 19조3천337억원과 12조5천866억원으로 총 31조9천2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형펀드는 주로 개인들이 투자한 펀드를 말한다.

◇펀드서 1조3천억 유출 ... 증권선 저가 매수=자산운용협회가 10월 들어 29일까지 주식형펀드 자금유출입동향(상장지수펀드 제외)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한달 국내와 해외주식형펀드에서 1조3천300억원이 빠져나갔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5천300억원과 7천7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순환됐다.

또 10월 유출규모는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출입 통계가 시작된 2006년 5월 이후 월간기준으로 가장 큰 것이다. 그동안 월간기준으로 순유출을 보인 경우는 지난 10월을 포함해 5차례였다. 이에 비해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9월 말 이후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됐다.

감기약·소화제 슈퍼서도 살 수 있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

약사들 반발 무마 여부 관건

고혈압 비타민이나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OTC) 일부를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약사들의 반발이 심해 해당 단체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2차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반의약품 일부를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추진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공적위는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비타민제 등의 약국의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의견이 한 방향으

로 모아지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반발 때문에 어떻게 설득할지를 고민하는 중"이라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이나 야간 등에도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약값 부담도 덜게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일반소매점에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국당 인구가 2천300~2천4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약사 등 이해집단의 반대가 심하지만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 응급처치키트, 상처난데 바르는 연고, 소독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은 일반소매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영국도 일반판매목록의약품을 지정해 아스피린과 대부분의 제산제, 간단한 가icht, 방부제 등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한다.

韓銀, 금리 0.25%~0.5%p 내릴 듯

7일 금통위 회의

한국은행은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는 0.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안 좋고 0.75% 포인트 내리기에 한후에 쓸 카드가 소진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정도 내릴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금통위원들의 생각도 수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정책은 어느 정도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실물경기는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기도 어렵다. 지난달 무려 0.75% 포인트 인하한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폭으로 내린다면 금리는 불과 열흘만에 1.5% 포인트나 하락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불안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아직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지 또는 0.5%포인트 인하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로도복권 (제30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2 5 11 18 36	2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901,622,946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6,119,016	25
3	5개 숫자 일치	1,189,191	1,390
4	4개 숫자 일치	47,826	69,125
5	3개 숫자 일치	5,000	1,109,802

팝콘복권 (제13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649501
2	1억	5조 442606
		5조 196621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5280
5	50만	각조 8991
		각조 45
6	2천	각조 92
		각조 94
		각조 6
7	1천	각조 9
		각조 4

3년내 착공 가능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부 관련법 개정 ... 경제자유구역 등 임대주택비율 완화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30일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산권·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에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제가능총량범위내에서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직역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연지	회계경리(여사원) 및 부업시공보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4	062-945-0693
ING생명(본사)	(본사직영)광주콜센터 남녀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04	02-3452-2612
롯데리아광주점	롯데리아 기동점 (점주,월드점) 매니저 (부정장)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05	011-630-6313
에스테크	경리, 사무 정규직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973-0822
㈜광아	1톤 냉동탑차 물품배송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05	062-366-2952
햇살 가득한 집	그래픽(심사수도안)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527-7935
㈜다솔테크놀로지	서버/보안/네트워크 유지보수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514-5966
㈜휴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역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06	02-780-9595
윤선생영어교실	광주/전남/영양상담 및 관리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07	062-526-0566
㈜에코닉스	품질관리 및 토목설계 기타 사무업무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07	062-352-7001
㈜슈퍼오도리	사무, 회계 관리 책임급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07	010-5012-2764
㈜금강플랜트	현장소장 경력직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1/08	062-975-1356
소녀감성	여성의류 소품류 소녀감성에서 함께할 피팅모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8	010-6236-607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OECD國중 韓·벨기에만

올해 경상수지 적자 전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상수지가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전환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 수입보다 유출이 더 많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

2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경상수지 흑자국은 11개국, 적자국은 19개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흑자국은 2개국이 줄고 적자국은 2개국이 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올해(상반기 기준)는 적자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간 59억5천4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6월에는 53억5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76억5천만 달러를 흑자를 달성했던 벨기에 역시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44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